2020년 1-1호

KIET 경제산업동향

2020. 1

산 업 연 구 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 1

1. 해외경제 ---- 3

2. 실물경제 ---- 6

3. 국내금융 ---- 8

4. 산업별 동향 ---- 10

5. 고 용 ---- 12

6. 수출입 ---- 13

< 부 록 >

구조개편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 ---- 16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9.11)]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 18

< 요 약 >

□ 해외경제 : 미국 혼조세, 일본·유로존 부진 지속, 중국 반등세

○ 미국은 11월 경제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합의 도출과 美 의회의 예산안 통과 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진정

○ 일본은 10월 내수 지표들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로존 역시 경제지표들의 부진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

○ 중국은 11월 내수 지표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수출 부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타결 등으로 내년도 성장률 전망 관련 낙관론 대두

○ 지난해 말 연준의 금리 동결 시사 등으로 약세를 보인 달러화는 연초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변동성 확대

○ 유가는 12월 초 OPEC의 감산 결정으로 상승세를 보인 이후, 올 들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급등락하는 등 변동 폭이 크게 확대

□ 국내경기 : 1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4%, 소비·투자 동반 증가

○ 11월중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건설업에서 전월비 감소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월비 0.4% 증가

-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비 0.5% 감소하고,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1.4% 증가

□ 금 융 : 12월 기업대출 감소·가계대출 확대, 연초(1.2~1.10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상승

○ 1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전월보다 감소하면서 전월과 달리 감소세로 전환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약간 더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지난 연말 위험자산 선호 등으로 상승한 이후, 연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파로 하락한 바 있으나, 안정세를 회복

○ 원/달러 환율은 올 들어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고, 달러화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상승

□ 산업별 동향 : 11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감소·서비스업생산 증가

○ 제조업생산은 반도체와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상당 폭 증가한 영향에도 전자부품과 자동차 등에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비 0.1% 감소

- 제조업ICT에서는 확대, 중공업에서는 증가 전환, 경공업은 감소세 지속

○ 서비스업생산은 운수·창고와 도소매와 교육 등에서 소폭 감소하고, 보건·사회복지, 정보통신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2.5%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5.6% 증가, 전월비 기준 2.6% 증가

□ 고 용 : 11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11월 전산업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된 영향에도 SOC·기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증가율이 1.2%로 하락

□ 수출입 : 12월 수출 −5.2%, 수입 −0.7%, 무역흑자 20억 달러

○ 지난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2% 감소한 457억 달러, 수입은 0.7% 감소한 43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선박류 등에서 두 자릿수 감수한 반면에, 일반기계와 철강,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되고, 나머지 품목들도 증가세로 전환되거나 감소세가 둔화

1. 해외경제

□ 미국 : 11월 실물·체감지표 혼조 지속, 정치적 불확실성 다소 진정

○ 11월중 생산 확대와 소비 둔화 등 실물지표들이 상반된 실적을 보이고, 체감지표들도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혼조세가 지속.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도출과 美 의회의 예산안 통과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진정

- 산업생산은 10월말 GM 공장의 파업 종료에 힘입어 자동차 생산이 전월비 큰 폭 증가(12.4%)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를 회복한 데 반해, 소매판매는 자동차·부품(0.5%) 등의 증가에도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전월과 달리 소폭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 기준치(50)를 밑돌고 있으며, 소비자신뢰지수도 미래 기대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하는 모습에도 현재 평가지수가 하락하면서 5개월 만에 최저

- 제조업 일자리 수는 전월과 달리 5.4만명 증가하고, 실업률도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추세의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슈에도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도출, 美 의회의 2020년도 예산안 통과 등에 따른 긍정적 기대감 확산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GDP,연율) (전년동기비, %)	2.9	3.1 (2.7)	2.0 (2.3)	2.1 (2.0)					
산업생산	3.9	-0.5	-0.6	0.3	-0.2	0.8	-0.4	-0.9	1.1
(IT 생산)	6.4	(1.9)	(-0.2)	(2.7)	(0.8)	(1.9)	(0.0)	(0.1)	(1.7)
내구재수주	7.9	0.3	-3.5	2.1	2.1	0.2	-1.5	0.2	-2.1
소매판매	4.8	0.3	1.9	1.4	0.7	0.6	-0.4	0.4	0.2
소비자물가	2.4	0.2	0.7	0.4	0.3	0.1	0.0	0.4	0.3
실업률(%)	3.9	3.9	3.6	3.6	3.7	3.7	3.5	3.6	3.5
무역수지(10억U$)	-627.7	-156.5	-159.1	-157.4	-52.7	-53.5	-51.1	-46.9	-43.1
ISM 제조업지수[1]	58.8	55.4	52.2	49.4	51.2	49.1	47.8	48.3	48.1
소비자신뢰지수[2]	130.1	125.8	128.3	132.1	135.8	134.2	126.3	126.1	125.5
경기선행지수[3]	110.1	111.5	111.8	112.0	112.2	112.0	111.8	111.6	111.6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10월 내수지표 부진, 日 정부 경기 하강 우려에 추경예산 검토

○ 지난 10월 생산과 소비가 전월과 달리 큰 폭 감소하고, 기업들의 수주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4분기 초반의 실물지표들이 부진한 모습. 日 정부는 성장률의 상향 추세 전망('19년도 0.9% → '20년도 1.4%)을 견지하면서도 실물경기의 하강 리스크에 대비하여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	0.3	0.6	0.5	0.4					
광공업생산	1.0	-2.5	0.7	-0.5	-3.3	1.3	-1.2	1.7	-4.5
민간기계수주	5.1	-3.2	7.5	-3.5	13.9	-6.6	-2.4	-2.9	-6.0
소매판매	1.7	-1.3	0.4	3.2	0.0	-2.3	4.6	7.2	-14.2
소비자물가	1.0	0.2	0.1	0.1	0.0	0.1	0.0	0.0	0.0
실업률(%)	2.4	2.4	2.4	2.3	2.3	2.2	2.2	2.4	2.4
무역수지(10억엔)	-1,225	-563	-329	-523	588	-252	-146	-128	16
경기선행지수[1)]	99.9	96.3	94.7	92.5	93.5	93.6	92.0	91.9	91.6

자료 :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11월 내수 반등·외수 부진, '20년 성장률 전망 낙관론 대두

○ 11월중 생산과 소비가 등 내수 지표들이 전월과 달리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외수 여건의 약세를 반영.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도출과 인민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등에 힘입어 2020년 성장률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대두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GDP)	6.6	6.4	6.2	6.0					
산업생산	5.7	6.5	5.6	5.0	4.8	4.4	5.8	4.7	6.2
고정투자(누계기준)	5.9	6.3	5.8	5.4	5.7	5.5	5.4	5.2	5.2
소매판매	8.3	8.3	8.5	7.6	7.6	7.5	7.8	7.2	8.0
소비자물가	2.2	1.8	2.6	2.9	2.8	2.8	3.0	3.8	4.5
수 출(달러화기준)	9.2	1.0	-1.0	-0.3	3.3	-1.0	-3.2	-0.9	-1.1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10월 경제지표 부진, 역내 정치적 불안 요인 여전히 상존

○ 지난 10월 역내 실물지표들의 동반 감소세와 경기체감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실물경기 부진을 시사. 英 보수당 승리에 따른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우려 완화에도 프랑스 파업 지속 등 정치적 불안 요인은 여전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	1.8	0.4	0.2	0.2					
산업생산	0.9	0.6	-0.7	-0.8	-1.5	-0.3	0.5	-0.1	-0.5
소매판매	1.6	0.8	0.6	0.5	1.0	-0.5	0.6	-0.2	-0.6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8	1.4	1.4	1.0	1.3	1.0	1.0	0.8	0.7
무역수지(10억유로)	192.4	52.8	51.5	55.4	17.7	17.0	19.7	18.7	24.5
경기체감지수[1)]	111.2	106.0	104.1	102.5	103.3	102.7	103.1	101.7	100.8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연초 주요국 환율 및 유가 변동성 확대

○ 지난 12월중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 동결 시사와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우려 등 각종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인 이후, 올 초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면서 엔화 및 유로화 대비 변동성이 크게 확대

○ 유가는 지난 12월 초 OPEC의 감산 결정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해 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우려로 일시 급등한 바 있으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약해지면서 다시 급락하는 등 올 들어 변동 폭이 크게 확대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19									2020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0일
엔/달러	111.42	108.29	107.85	108.78	106.28	108.08	108.03	109.49	108.61	109.45
달러/유로	1.1215	1.1169	1.1373	1.1076	1.0982	1.0899	1.1152	1.1018	1.1213	1.1121
미 국채(10년만기)	2.50	2.12	2.01	2.01	1.50	1.66	1.69	1.78	1.92	1.82
WTI유	63.9	53.5	58.5	58.6	55.1	54.1	54.2	55.2	61.1	59.0
두바이유	72.1	63.2	64.8	63.6	59.6	59.9	59.3	62.7	65.4	65.2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증가, 소비·투자 증가 전환

○ 지난 1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건설업에서 전월비 감소한 반면에, 서비스업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월비 0.4% 증가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월비 9.3%)가 큰 폭 증가함에도 자동차(-7.5%)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전월비 0.5%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3.0%)와 금융·보험(2.1%)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1.4% 증가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GDP성장률	3.2	2.7*	1.7* (-0.4*)	2.0* (1.0*)	2.0* (0.4*)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8	2.8*	1.9* (0.1*)	2.0* (0.7*)	1.8* (0.2*)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16.5	-2.4*	-17.4* (-9.1*)	-7.0* (3.2*)	-2.6* (0.6*)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7.3	-4.3*	-7.2* (-0.8*)	-3.5* (1.4*)	-3.7* (-6.0*)	-	-	-	-
전산업생산지수	2.5	1.4*	-0.6 (-0.8)	0.4 (0.5)	0.5* (1.1*)	0.0 (0.2)	0.5* (-0.4*)	-0.2* (0.0*)	1.2* (0.4*)
광공업생산지수	2.4	1.3*	-2.1 (-2.9)	-0.7 (1.4)	-0.7* (2.0*)	-3.3 (-1.8)	0.7 (2.3)	-2.1* (-1.6*)	-0.3* (-0.5*)
제조업생산지수	2.2	1.2*	-2.1 (-3.0)	-0.8 (1.6)	-0.6* (1.9*)	-3.3 (-2.0)	0.5 (2.4)	-2.0* (-1.3*)	-0.1* (-0.6*)
서비스업생산지수	1.9	2.1*	1.1 (0.3)	1.4 (0.0)	1.6* (0.8*)	2.4 (1.1)	0.9 (-1.4)	0.8* (0.5*)	2.5* (1.4*)
소매판매액지수	1.9	4.2*	1.7 (1.3)	2.0 (1.0)	2.3* (0.2*)	4.1 (3.9)	3.0 (-2.3)	2.0* (-0.4*)	3.7* (3.0*)
설비투자지수	14.1	-3.7*	-19.6 (-5.4)	-8.7 (1.2)	-3.7* (1.2*)	-4.0 (0.5)	-2.4 (3.0)	-3.6* (-0.7*)	0.0* (1.1*)
건설기성액	10.1	-5.2*	-9.5 (1.8)	-6.4 (-1.8)	-7.9* (-4.3*)	-7.4 (0.9)	-8.1 (-3.4)	-3.7* (2.6*)	-4.7* (-1.8*)
동행종합지수(2015=100)	107.2	109.4*	109.8	110.4	111.1*	111.1	111.3*	111.4*	111.5*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1.1	100.5*	99.4	99.4	99.4*	99.5	99.5*	99.4*	99.3*
선행종합지수(2015=100)	109.3	112.8*	113.8	114.6	115.0*	114.9	115.4*	116.1*	116.9*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2	100.2*	99.0	98.9	98.4*)	98.4	98.5*	98.8*	99.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소매판매는 내구재(전월비 3.4%)를 비롯해서 준내구재(5.6%)와 비내구재(1.9%) 등의 판매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비 3.0% 증가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전월비 -0.3%)가 소폭 감소함에도 운송장비 투자(4.6%)가 상당 폭 증가하면서 전월비 1.1% 증가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 공사 실적(-2.9%)이 감소한 여파로 전월비 1.8% 감소

- 동행종합지수는 내수출하지수와 수입액 등이 감소한 반면에, 서비스업 생산지수와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1%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수출입물가비율의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차와 코스피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7% 상승

□ 물가 : 1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상승, 전년동월비 0.7% 상승

○ 12월 소비자물가는 오락·문화(-0.7%)와 통신(-0.1%) 등에서 하락한 반면에, 식료품·비주류음료(전월비 1.0%)와 교통(0.4%), 주택·수도·전기·연료(0.2%) 등에서는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2% 상승(전년동월비 0.7%)

○ 11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품(전월비 0.9%)에서 소폭 상승하고, 서비스에서는 보합세(0.0%)를 보인 반면, 공산품(-0.2%)과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0.2%)에서 동반 하락함에 따라 전월비 0.1% 하락(전년동월비 -0.1%)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	1.5	0.4	0.5 (-0.4)	0.7 (0.4)	0.0 (-0.1)	0.3 (0.3)	0.0 (0.2)	-0.4 (0.4)	0.0 (0.2)	0.2 (-0.6)	0.7 (0.2)
근원물가	1.2	0.9	1.1 (0.4)	0.9 (0.3)	0.8 (-0.1)	0.7 (0.1)	0.9 (0.1)	0.6 (0.0)	0.8 (0.2)	0.6 (-0.3)	0.7 (0.1)
생산자물가	1.9	-	0.3 (-0.5)	0.4 (0.5)	-0.5 (0.4)	-	-0.6 (0.2)	-0.8 (0.1)	-0.6 (-0.2)	-0.1 (-0.1)	-
근원물가	1.6	-	0.3 (-0.2)	0.3 (0.4)	-0.2 (0.0)	-	-0.2 (0.1)	-0.3 (-0.1)	-0.3 (0.0)	0.0 (-0.1)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2월 기업대출 감소·가계대출 확대

○ 1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전월보다 감소하면서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
(19.11월 +5.9조원 → 19.12월 −6.2조원, 대기업 −2.2조원, 중소기업 −3.9조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연말 기업들의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과 은행들의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대출이 감소 전환

○ CP도 기업들의 연말 재무비율 관리 등의 영향으로 순상환
(19.11월 +0.7조원 → 19.12.1~20일 −3.1조원)

○ 회사채는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순상환 기조가 지속
(19.11월 −0.8조원 → 19.12월 −0.6조원)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약간 축소
(19.11월 +1.0조원 → 19.12월 +0.7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7		2018		2019				19.12월말 잔액
	연중	12월	연중	12월	연중	10월	11월	**12월**	
■ 은행 원화대출	38.1	-7.4	42.7	-6.8	44.9	7.5	5.9	**-6.2**	869.0
(대 기 업)	-3.5	-5.0	5.0	-2.3	-2.4	1.1	0.8	**-2.2**	152.3
(중소기업)	41.6	-2.4	37.6	-4.4	47.3	6.3	5.1	**-3.9**	716.7
〈개인사업자〉	27.8	1.5	25.0	0.3	24.7	2.8	2.6	**0.8**	338.5
■ 회사채 순발행	-3.5	-1.1	5.2	-0.8	15.8	3.6	-0.8	**-0.6**	..
■ CP 순발행	2.3	-0.9	0.8	-2.1	-1.3	-0.4	0.7	**-3.1**	17.0
■ 주식발행	13.9	1.7	10.1	0.9	6.3	0.5	1.0	**0.7**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12월중 금융시장 동향).

○ 12월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월비 증가세가 지속되는 양상
(19.11월 +7.0조원 → 19.12월 +7.2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수요 지속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19.11월 +4.9조원 → 19.12월 +5.6조원)

- 기타대출도 주택자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월보다 증가
(19.11월 +2.1조원 → 19.12월 +1.6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7		2018		2019				19.12월말 잔액
	연중	12월	연중	12월	연중	10월	11월	**12월**	
은행 가계대출	58.9	4.1	60.8	5.4	60.7	7.2	7.0	**7.2**	888.3
■ 주택담보대출	37.2	2.8	37.8	4.9	45.6	4.6	4.9	**5.6**	653.6
■ 기타대출	21.6	1.3	22.6	0.5	15.1	2.5	2.1	**1.6**	233.6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12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월 초(1.2~1.10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지난 연말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매도와 각종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등 영향으로 상승한 이후, 연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파로 일시 하락한 바 있으나, 다시 안정세를 회복
(1.2일 1.33% → 1.10일 1.43%, 0.1%p 상승)

○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월중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완화 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영향으로 하락한 이후, 올 들어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와 달러화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상승
(1.2일, 1,158.1원 → 1.10일 1,161.3원, 3.2원 상승)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17	2018			2019				2020
		2/4	3/4	4/4	1/4	2/4	3/4	4/4	1.10일
국고채(3년)	2.08	2.12	2.01	1.82	1.69	1.47	1.30	1.36	1.43
회사채(3년,AA-)	2.63	2.77	2.45	2.29	2.16	1.97	1.80	1.94	1.99
CD(91일)	1.64	1.65	1.65	1.93	1.90	1.78	1.55	1.53	1.46
CP(91일)	1.79	1.82	1.82	1.97	1.98	1.92	1.72	1.69	1.69
원/달러	1,088.2	1,114.5	1,109.3	1,115.7	1,135.1	1,154.7	1,196.2	1,156.4	1,161.3
원/100엔	966.5	1,014.8	981.2	1,013.2	1,028.2	1,073.4	1,113.4	1,063.5	1,059.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11월중 전년동월비 －0.1%, 전월비 －0.6%

○ 제조업생산은 반도체(전년동월비 30.9%)를 비롯해서 기타운송장비(9.8%)와 기계장비(3.0%) 등에서 상당 폭 증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15.6%)과 자동차(-11.2%) 등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1%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3.3%)에서 증가세가 확대되고, 중공업(0.8%)에서도 증가세를 회복한 반면, 경공업(-4.3%)에서는 감소세가 지속

- 전월비 기준으로는 반도체(9.3%)와 석유정제(4.1%), 1차금속(1.8%) 등에서 증가한 반면, 통신·방송장비(-14.3%)와 자동차(-7.5%), 금속가공(-6.5%) 등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조업 전체 기준 0.6%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3.2)는 반도체와 식료품 등에서 상승세를 보인 반면, 기타운송장비와 전자부품, 자동차 등에서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0.9%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1.4%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6.3%로 전월비 0.7%포인트 상승,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감소폭(-2.6% → -1.3%,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이 축소되고, 재고 증가폭(6.3% → 3.1%) 역시 축소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8%로 전월보다 1.5%p 하락

□ 서비스업생산 : 11월중 전년동월비 ＋2.5%, 전월비 ＋1.4%

○ 서비스업생산은 운수·창고(전년동월비 -1.9%)와 도소매(-0.3%), 교육(-0.2%), 등에서 소폭 감소하고, 보건·사회복지(9.4%)와 금융보험(4.8%), 정보통신(6.3%), 부동산(6.7%)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2.5%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 보더라도 운수·창고(-0.7%)와 전문·과학·기술(-0.5%)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도소매(3.0%), 금융·보험(2.1%), 부동산(6.2%), 숙박·음식점(2.0%) 등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서비스업 전체 기준 1.4%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5.6% 증가, 전월비 기준 2.6%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7년)	2017	2018	2019						
				1/4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광 공 업 (원지수)	10,000	104.7	106.1	100.2	106.2	104.5	102.8	109.9	109.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4	1.3	-2.1	-0.7	-0.7	0.7	-2.1	-0.3	-0.5
제 조 업 (원지수)	9,340.4	104.6	105.9	98.9	106.6	104.6	103.3	110.8	109.3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2	1.2	-2.1	-0.8	-0.6	0.5	-2.0	-0.1	-0.6
섬 유	136.7	-3.1	-6.7	-9.0	-7.5	-3.7	-1.4	-7.0	-6.9	-3.7
화 학	831.5	3.5	2.3	-3.1	-6.1	-2.0	-1.5	-1.9	-1.2	-1.6
철 강	604.5	1.6	-3.0	-2.4	-2.1	-2.7	-2.0	-3.9	-4.2	2.9
반도체	1,218.3	10.9	20.2	5.8	7.9	8.3	9.7	11.7	30.9	9.3
컴퓨터, 주변장치	44.5	-10.2	-7.7	2.5	-6.8	-7.2	7.4	-8.5	-17.1	-6.5
통신, 방송장비	144.7	-9.7	-7.1	-16.4	-8.4	3.1	7.6	11.5	7.4	-14.3
의료, 정밀, 광학	186.1	19.1	15.1	-8.3	-11.5	-20.5	-22.2	-19.6	-8.5	2.6
기계, 장비	835.8	13.5	-2.9	-11.4	-6.8	-1.8	3.2	0.0	3.0	-0.8
자동차	1,066.4	-2.7	-1.4	2.5	1.7	-0.3	-2.7	-6.0	-11.2	-7.5
조 선	221.1	-29.2	-13.5	9.6	22.2	25.9	33.2	19.7	18.7	0.0
- 중 공 업	-	2.6	2.2	-2.0	-0.8	-0.5	0.8	-1.6	0.8	1.0
- 경 공 업	-	0.1	-3.1	-2.3	-0.9	-1.2	-1.2	-4.2	-4.3	-4.3
- 제조업ICT	-	7.1	11.3	-2.2	0.9	1.1	3.7	2.9	13.3	0.1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4.5	106.7	104.5	98.7	102.8	106.7	109.0	110.2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9	2.1	1.1	1.4	1.6	0.9	0.8	2.5	1.4
도소매	211.3	0.7	1.5	-0.6	-0.1	0.4	-0.1	-1.5	-0.3	3.0
운수, 창고	90.3	1.6	2.1	1.2	-1.3	0.2	-0.7	-0.9	-1.9	-0.7
숙박 및 음식점	61.6	-1.9	-1.9	-1.3	-1.3	-2.6	-4.6	-0.5	-0.2	2.0
정보통신	79.9	1.6	1.4	3.0	3.9	3.2	3.2	6.6	6.3	0.2
금융 및 보험	140.9	5.1	5.8	1.0	1.1	3.9	1.4	-0.7	4.8	2.1
부동산	31.8	1.2	0.2	-2.9	-1.6	0.6	0.9	-1.1	6.7	6.2
전문, 과학 및 기술	71.0	-1.6	0.8	0.6	1.9	2.4	2.2	2.0	0.8	-0.5
사업시설관리 등	47.7	4.2	0.6	-0.2	3.0	3.2	3.7	3.1	4.4	1.2
교 육	106.0	0.0	0.1	-0.8	-0.9	-0.5	0.6	-0.2	-0.2	0.2
보건 및 사회복지	94.3	6.6	5.6	8.4	9.8	5.7	5.0	6.4	9.4	0.2
예술, 스포츠, 여가	21.7	0.2	-0.6	2.3	0.3	-0.9	-4.4	-0.1	5.9	8.1
협회, 수리, 개인	32.1	0.0	0.7	-2.2	-0.7	-2.6	-3.3	-1.8	0.4	1.5
수도, 하수, 폐기물	11.4	0.4	3.0	-1.8	-3.2	0.8	1.8	-0.4	0.9	-0.6
- ICT서비스업	-	-4.3	9.7	-1.1	-4.3	9.7	4.0	5.3	5.6	2.6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 용

□ 취업자 수 : 11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11월 전산업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현저하게 축소된 영향으로 인해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둔화(1.5% → 1.2%)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폭 축소가 지속(전년동월비 -1.8% → -0.6%)
-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증가폭이 전월보다 현저히 축소(농림·어업 3.9% → 1.6%, SOC·기타서비스업 2.1% → 1.6%)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2.5% → -3.3%)가 이어지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 전환(0.8% → -0.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금융및보험업(-6.3% → -3.9%)과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4.3% → -3.1%) 등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된 영향에도 불구,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7.0% → 6.3%)과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9% → 6.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4.6% → 2.7%) 등 다수 업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세도 둔화(4.7% → 4.0%, 2019.6월 이후 5개월 만에 하락)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6%로 3개월 연속 상승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 산 업	26,725	26,822	26,461	27,256	27,382	27,383	27,358	27,404	27,509	27,515
전년동기비	1.2	0.4	0.7	0.9	1.4	1.1	1.7	1.3	1.5	1.2
농림·어업	0.5	4.8	9.6	1.2	3.9	3.7	3.7	4.2	3.9	1.6
제 조 업	-0.4	-1.2	-3.1	-1.4	-1.7	-2.1	-0.5	-2.5	-1.8	-0.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0.5	1.1	1.4	1.8	1.6	2.0	1.9	2.1	1.6
건 설 업	6.4	2.3	-0.4	0.0	0.0	0.6	1.3	-1.9	-2.5	-3.3
도소매·음식숙박업	0.6	-1.9	-0.9	0.3	0.5	0.2	0.9	0.3	0.8	-0.1
전기·운수·통신·금융	-1.1	3.3	1.2	0.3	-0.8	-0.4	-1.4	-0.7	-0.7	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2.1	0.7	2.6	2.7	3.9	3.3	4.0	4.5	4.7	4.0
실 업 률 (계절조정, %)	3.7	3.8	3.9	4.0	3.5	4.0	3.1	3.4	3.5	3.6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2월 수출 5.2% 감소, 수입 0.7% 감소, 무역수지 흑자 20억 달러

○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2% 감소한 457억 달러, 수입은 0.7% 감소한 43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은 반도체·석유제품 단가의 회복 지연과 선박 수출의 감소 전환 영향에도 미·중 무역분쟁의 1단계 합의 기대감과 대중국 수출 회복, 연말 쇼핑 시즌에 따른 IT품목의 호조 등에 힘입어 한 자릿수 감소율

- 수입은 원유·석유제품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입액이 한 자릿수 감소율로 축소된 데다, 그동안 부진세를 보인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도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월비 0.7%의 감소율을 기록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67.5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0.6% 하락해 있고, 도입물량도 6.1% 감소하면서 금액 기준으로 6.7% 감소한 59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수 출	5,737	6,049	5,424	1,385	1,348	1,365	447	467	441	457
	(15.8)	(5.4)	(-10.3)	(-8.6)	(-12.3)	(-11.7)	(-11.8)	(-14.9)	(-14.4)	(-5.2)
수 입	4,785	5,352	5,032	1,288	1,249	1,258	387	414	407	437
	(17.8)	(11.9)	(-6.0)	(-3.3)	(-4.1)	(-9.7)	(-5.6)	(-14.6)	(-13.0)	(-0.7)
무역수지	952	697	392	98	98	107	59	53	33	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12월 실적은 잠정치 기준.

□ 일반기계·철강·자동차·자동차부품·가전 수출 증가세로 전환

○ **반도체** : 낸드 단가의 완만한 상승과 신규 스마트폰 판매 호조 및 5G 서비스 본격화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IT기기의 비수기 진입에 따른 D램 가격의 회복 지연과 수요 증가 부재 요인 등으로 인해 수출 감소 지속

○ **자동차** : 전세계적인 자동차 수요 감소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부분 파업 등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에 대한 SUV 중심의 수출 호조 및 수출단가 상승세의 지속, EU 지역으로의 친환경차(전기차 등)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 **자동차부품** : 미·중 무역분쟁 여파에 따른 대중국 조립용 부품 수출 감소와 국내 기업들의 유럽 시장 철수에 따른 관련 부품 수출 감소의 영향에도 불구, 우리 완성차 기업들의 SUV 판매 호조와 신형 세단의 본격 출시 등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

○ **선박류** : 최근에 선박 건조는 증가 추세이나, 전년대비 군함·플랜트 수출의 전무, 전년 12월 수출 호조(월별 최대)에 따른 기저효과, 2016~18년초의 낮은 선가로 계약된 선박들의 본격 인도 등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 **디스플레이** : 중저가 스마트폰의 OLED 채용 확대와 TV용 OLED 단가 상승으로 OLED 수출이 소폭 증가한 반면, 중국의 패널 생산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과 단가 하락으로 LCD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

○ **무선통신기기** : 해외 기업들의 신형 휴대폰 생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부분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교체주기 연장 추세와 글로벌 휴대폰 시장 침체, 주요국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

○ **철 강** : 중국·미국 등 주요국들의 공급 확대와 전방산업(자동차·건설 등)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세안과 중남미 등의 지역으로의 수출선 다변화 노력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1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 **섬 유** :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들의 섬유 수요가 일부 회복되면서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아세안 수출 부진과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체 섬유 수출은 소폭 감소

○ **석유제품** :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 추세에도 석유제품의 수요 회복 지연과 아시아 역내 신규 정제시설 가동에 다른 공급 증가 등으로 수출이 감소

○ **석유화학** : 국제유가 상승과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 기대감 등으로 시황 개선이 기대되고 있으나, 역내 NCC(나프타분해시설) 설비가동 증가 등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 정기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 **일반기계** : 미국내 신규 투자 감소에도 불구, 중국의 기계산업 투자 회복과 낙후설비 교체에 다른 대중국 수출 회복, 카자흐스탄 석유·화학 생산시설 투자에 따른 화학기계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이 7개월 만에 증가

○ **가 전** :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주요국 시장에서의 쇼핑 행사 확대 및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평가 향상, 대형 냉장고 등 해외물량의 국내생산 전환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

○ **컴퓨터** : PC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 낸드(NAND) 공급 초과율 축소에 따른 단가 하락세 진정과 데이터센터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SSD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자동차	3.8	-1.9	5.3	8.9	10.3	-1.2	3.9	-2.3	-1.4	0.3
자동차부품	-9.5	-0.1	-2.5	-7.2	-0.7	-4.5	1.9	-7.2	-9.4	4.1
선박류	23.1	-49.6	-5.1	49.2	39.1	-40.8	30.9	25.7	-62.1	-57.9
일반기계	11.4	10.2	-1.8	0.5	-4.5	-3.6	-1.7	-12.3	-1.8	4.2
철 강	20.0	-0.7	-8.5	-8.1	-17.6	-4.8	-9.3	-12.3	-8.8	7.7
석유화학	23.5	11.9	-14.8	-15.9	-16.9	-16.2	-18.5	-22.6	-19.0	-5.9
석유제품	32.0	32.3	-12.3	-13.0	-14.4	-16.3	-17.1	-26.7	-12.4	-7.2
섬 유	-0.5	2.5	-7.9	-8.5	-8.6	-7.7	-5.9	-6.9	-12.3	-3.5
가 전	-22.1	-18.3	-3.6	-2.3	-1.4	-4.3	0.3	-6.5	-6.9	1.3
무선통신기기	-25.5	-22.7	-17.6	-21.0	-17.0	-3.8	0.6	-6.7	-2.9	-0.5
컴퓨터	9.5	17.2	-20.6	-36.5	-26.2	21.5	-22.2	7.7	23.5	35.2
반도체	57.4	29.4	-25.9	-23.6	-30.3	-27.6	-31.6	-32.1	-30.8	-17.7
디스플레이	9.0	-9.9	-17.0	-13.8	-19.9	-21.0	-17.2	-22.5	-23.4	-16.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2월 실적은 잠정치 기준.

부 록	구조개편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9.11.29일)

□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한 세계 자동차 업계

○ **(판매시장 침체 지속)** 세계 자동차 시장은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의 판매 부진 심화로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성장이 정체중에 있으며, 201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 **(구조조정 진행)** 미래 대비(전기차와 자율주행차)와 수익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반영된 구조조정이 국내외적으로 진행

- 국내 자동차업계도 2018년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

〈표〉 세계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 동향

기업명	주요 내용
Ford	유럽에서 수천명 감원, 1.6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 모색, 브라질 공장 1곳 폐쇄, 3,000명 감원
Honda	2021년까지 유럽 일부(영국, 터키) 생산 중단
GM	전 세계 공장 7곳 폐쇄, 1만 4,000명 감원
Renault Nissan	닛산 미국/멕시코 공장 1,700명 감원 중국 닛산 공장 생산량 20% 감축
VW	2023년까지 사무관리직 7,000명 감원
동풍PSA	中 공장 4개중 2개를 폐쇄하고, 수천명 감축 합의
Jaguar	2019년 전 직원의 10%에 이르는 4,500명 감원
Toyota	임원수 55명에서 23명으로 감축, 간부직급 통폐합
Suzuki	2018.9월 중국 공장 폐쇄/사업 철수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 국내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 동향

기업명	주요 내용
현 대	북경 1공장 폐쇄(30만대), 3공장 감산(15만대), 북경 1공장 2,000명 희망퇴직
기 아	중국 옌청 1공장 가동 중단(14만대)/외부 임차
만 도	임원 20% 감원과 대규모 희망퇴직 실시
르노 삼성	400명 규모의 희망퇴직과 순환휴직 실시 예정
쌍용차	임원 20% 감원 및 임원급여 10% 삭감, 근로자 복지 축소안 제시
한국 지엠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및 2,500명 가량 인력 감축, 창원공장 주야간 2교대 → 주간 1교대, 창원공장 비정규직 560여명 해고 예정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한국 자동차 산업 동향

○ **(국 내)** 내수는 수입차가 잠식하는 중이고, 수출은 6년 연속 감소세

- 내수시장은 연간 180만대에서 정체중인 가운데 수입차는 2018년 사상 최대의 판매량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국내시장을 잠식

○ **(중 국)** 수요 부진과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실적 악화가 가장 큰 리스크

- 현대/기아차는 현지 생산공장의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현지 법인 북경현대와 동풍열달기아의 수익성은 2017년부터 급격히 악화

○ **(미 국)** 해결되지 않는 미국 법인의 부진한 수익성도 염려되는 부분

- 최근 판매량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확대, 원가 상승, 지속적인 품질비용 발생 등으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요원한 상황

○ **(부 품)**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데다, 중국 시장 둔화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지속

- 자동차 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2018년부터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사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 그동안 실적 성장의 기반이었던 중국시장의 수요 급감과 경쟁 심화, 완성차 제조사들의 구조조정 등이 자동차 부품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원인

□ 정부·민간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

○ **(정 부)** 2019년 말부터 기존의 유동성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산업생태계의 미래차 사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

○ **(민 간)** 현대/기아차는 인력 및 생산설비의 구조조정을 통해 고정비용을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수익성과 판매량 제고에 주력

□ 국내 자동차 업계의 구조개편 전망

○ **(국 내)** 승용차 제조사는 現 5개사에서 2~3개사 정도만 남을 것으로 예상

○ **(해 외)** 현대/기아차는 중국을 벗어나 신남방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

- 현대/기아차는 2019년중 중국에서 59만대의 생산능력 감축을 하였지만, 판매량이 오히려 두 자릿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생산설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

○ **(부 품)** 실적 변동성이 커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동차산업의 변혁기 진입으로 미래차 대응력 정도에 따라 부품사의 경쟁 지위에 변화가 있을 전망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13)	(1.14)	(1.15)	(1.16)	(1.17)
	12월 수출입통계 12월 소비자물가	11월 수출입통계 11월 산업생산 12월 고용동향	11월 기계수주 12월 소매판매	11월 소매판매(수) 12월 소비자물가(수) 12월 산업생산 금융통화위원회
(1.20)	(1.21)	(1.22)	(1.23)	(1.24)
11월 산업생산(수) BOJ 통화정책회의	12월 산업생산 12월 소매판매 12월 고정투자 19.4분기 실질GDP 12월 생산자물가	19.4분기 실질GDP (속 보 치)	12월 무역수지(잠) 11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ECB 통화정책회의 12월 경기선행지수	12월 소비자물가
(1.27)	(1.28)	(1.29)	(1.30)	(1.31)
	12월 내구재수주(잠) 1월 소비자신뢰지수 연준 FOMC(~1.29일)	1월 소비자신뢰지수	12월 무역수지(수) 1월 경제체감지수 12월 실 업 률 19.4분기 실질GDP (예 비 치)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12월 소매판매(잠) 12월 산업생산(잠) 12월 실 업 률 1월 소비자물가(예) 19.4분기 실질GDP (예 비 치) 12월 개인소비 12월 산업활동동향
				(2.1)
				1월 수출입통계
(2.3)	(2.4)	(2.5)	(2.6)	(2.7)
1월 ISM 제조업지수	1월 소비자물가	12월 소매판매 1월 ISM 비제조업지수 12월 무역수지		12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1월 고용보고서